

유길준과 서재필을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 근대 공원의 태동과 공원관의 형성

우연주*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처음 우리나라에 공원의 개념이 도입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원’, ‘public park’ 혹은 ‘public garden’, ‘公園’이라는 용어와 함께 1876년 개항 이후 공원 혹은 그와 유사한 용어와 개념이 유입 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강신용과 장윤환, 2004). 흔히 근대 도시의 사회적 산물로서 자생적으로 생성, 발전해온 서구의 공원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개화와 함께 공원이 ‘유입’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으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원에는 자생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공원이 도입되던 시점의 사람들이 지닌 의식과 생각을 살펴봄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공원을 어떤 태도와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고자 했는지, 우리나라 공원의 태동과 공원관의 형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초로 공원에 관한 ‘기록’을 남긴 유길준과 자주적 공원의 ‘조성’을 시도했던 서재필을 중심으로 그러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유길준의 경우 『서유견문』에 쓰인 그의 글을 바탕으로, 그리고 서재필의 경우 『독립신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의 공원관을 읽어내며, 이를 위해 서재필과 유길준에 관한 다양한 인문·사회적 연구를 참고한다. 이처럼 당시의 공원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파악하는 일은 우리의 근대 공원의 태동에 관한 재인식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조경의 근원에서부터 발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II. 유길준을 통해 본 공원 사상의 도입

1.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사상적 배경

한국 최초의 유학생으로서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조선조 말기에 서구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의 기존 사회체제를 개혁하고자 한 정치인이자 개화사상가였다. 유길준은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하였으며, 이후 귀국길에 영국의 런던, 이집트의 사이드항, 싱가포르, 홍콩, 일본을 경유하였고, 이를 토

대로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작성하였다¹⁾. 총 20편으로 구성된 서유견문은 단순한 기행문이 아닌 유길준 자신이 목표로 한 정치개혁의 방향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용화, 1999).

유길준은 서양의 문물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자신만의 철학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유길준의 개화사상은 서양을 본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서유견문을 통해 서양문명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물을 소개한다. 이것들은 개명한 사회로의 진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길준은 “개화는 인간의 천사만물(千事萬物)이 지선극미(至善極美)한 지역에 이르는 것(김정현, 2006)”이라고 개화를 정의한다.

하지만 서양의 개화하고 진보한 문명을 받아들임에 있어, 유길준은 수구적이지도 급진적이지도 않은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즉, ‘시세’와 ‘치지’를 감안하여 ‘집중’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은 개화에 대한 유길준의 핵심 사상으로써 유교윤리를 바탕에 둔 채 서구 문물과 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려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적 사상을 지니고 있다(한철호, 2000).

마지막으로 유길준은 ‘자연(自然)’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것이 인간의 생활, 성격에 많은 영향을 주며 인간은 주어진 자연에 순응하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문명(文明)을 건설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문명(社會), 즉 사회와 밀접하지만 독립된 개념으로 국가(國家)를 언급하며 국가란 곧 사회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조영, 1991).

2. 유길준의 공원관

유길준은 도서관, 식물원, 박물관, 동물원 등과 함께 공원을 통해 정부가 국민계몽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²⁾, 특히 공원의 효용성에 대해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 그 중에서도 공원을 여기저기 만드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이 나 부자나 ... 정신이 피곤하고 기력이 나태해졌을 때에 공원에 들어가 ... 가슴이 맑아지고 심신이 상쾌하여 ...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많은

재산을 들여 공중을 위한 즐거움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 (『서유견문』, 제2부 6편)

유길준은 공원이 교육과 휴식, 그리고 심신의 건강을 위한 위생상의 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단순한 견문록으로서 보고 들은 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닌 유길준 자신의 정치개혁 사상의 방향을 담고 있다는 앞선 논의에 비춰 봤을 때, 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위와 같은 논의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도서관, 식물원, 박물관과 더불어 '공원'을 교육의 장소로서 파악하고 심신의 건강과 공중의 즐거움을 위한 장소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장소로서 파악, 즉 근대 공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원의 필요성을 도시계획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공공성-를 들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을 비롯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나라의 공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제2부 8편에 '나라에서 공사하는 일'에 나와 있다.

나라에서 공사하는 일, 이 일도 나라의 재정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 나라 국민들이 함께 낸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 국민들의 재주나 학식이 모자라 이처럼 커다란 공사를 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전국적인 세금이나 각 지방의 세금을 들어서 그 일에 적당한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서유견문』, 제2부 8편)

유길준은 서유견문의 3부 19, 20편을 통해 서양 각국 대도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각 도시의 지형적 특성, 주요 건물, 공원, 그리고 도시계획에 이르는 부분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유길준이 미국으로 가기 전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해 봤을 때, 그가 서구 근대 공원을 접하기 전부터 이미 공원에 대한 일부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러한 내용은 유길준이 귀국한 이후 『서양사정(西洋事情)』을 참고해 작성했다는 사실(김정현, 2006)을 통해 그의 공원에 대한 생각 또는 지식의 정도에 당시 일본에서 행해졌던 연구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측 또한 가능하다.

서유견문에 서술된 세부적인 공원의 묘사로부터 이해되는 유길준의 공원관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길준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서술하고 있다.

처음에 이름난 기술자 50명을 고용하여 자기 자기들 생각대로 기량을 다투게 하였다. 원래 이 땅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빌려서 동산과 골짜기같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고, 푸른 소나무와 늘어진 버드나무를 산간 좌우 언덕에 심어, 그윽한 풍치

와 맑고 아담한 운취가 사람의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였다. 그같이 시끄럽고 요란한 도시 한가운데 은연히 산림의 분위기가 있으며, 산봉우리와 길이 돌아서는 곳에 넓적하게 전망이 트이면 한 이랑 맑은 호수가 거울처럼 잔잔히 펼쳐져, 물결과 연기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에 작은 섬 한 점이 반달처럼 굽어 돈다. 산 위 정자에 오르면 아름다운 나무가 난간에 부딪치고 맑은 아지랑이가 옷 속으로 스며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강호(江湖) 살고픈 생각을 저절로 일어나게 한다. ... (『서유견문』, 제3부 19편)

공원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동산과 골짜기같이 자연스러운 모습, 맑은 호수, 산 위의 정자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평평한 땅에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 이러한 모습을 조성했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은 유길준이 공원을 단순히 관찰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공원의 조영방식 등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수목에 대해서는 '소나무'와 '버드나무'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식재에 관한 정보는 부족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수목들에만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익숙한 표현의 사용은 공원의 풍경이 마치 우리나라의 산수(山水)를 감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유길준이 서구의 공원을 묘사할 때,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내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유길준은 서양의 공원에 대해 동양적 해석을 하고 있으며, '소나무와 버드나무', '그윽한 풍치', '아담한 운취', '은연한 산림의 분위기', '산봉우리' 등의 표현을 통해 서구의 공원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정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서구의 공원에 '정자'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자와 비슷한 외양 혹은 기능을 지닌 서구 문물의 대상에 대해 우리 식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필라델피아의 페어마운트 공원(Fairmount Park)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해석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강가에 있어 여행자로 하여금 산수의 그윽한 경치를 맛보며,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의 구절을 저절로 읊게 하니, 이 태백의 이 시는 바로 이 공원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서유견문』, 제3부 19편)

III. 독립공원을 통해 본 서재필과 독립협회의 공원관

1. 서재필과 독립협회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재필(徐載

彌, 1864~1951)은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으로 망명했으며, 1890년 6월 19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이택휘 등, 1993).

이러한 서재필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는 다소 왜곡되거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특히 서재필과 독립협회의 공원관을 파악하기 위한 사료로 이 글에서 많이 활용하게 될 『독립신문』 혹은 독립신문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t』, 『독립협회회보』에 쓰인 글은 그것이 누구의 글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윤치호가 서재필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적어도 글을 씀에 있어서는-을 거의 상실했다고 증언한 사실로 미루어 적어도 한글 표기인 경우 서재필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았을 것(주진오, 2009)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신문의 고문으로서 또 협회의 대표로서, 대부분의 많은 일에 서재필의 생각이 깊이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에는 많은 이견이 없는 듯하다. 결국 분명한 점은 그의 생각과 구상이 많은 부분 협회의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협회의 행보와 신문에 기록된 내용이 그의 사상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의 건립

1895년 개화과정에서는 영은문(迎恩門)을 철거했다. 같은 해 귀국했던 서재필이 이곳에 ‘독립문(獨立門)’을 세워 자주독립의 뜻을 밝힐 것을 뜻하는 인사들에게 발의하였으며 1896년 6월 20일자 독립신문과 같은 날 신문의 영문판 『The Independent』에서 독립문(Independence Arch)의 건립에 대한 기사가 나갔다. 이후 독립협회가 조직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으며(신용하, 2001) 서재필이 독립문 건립 책임자로 선정되었다.

독립문 건립과 함께 독립공원의 조성 계획도 진행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독립공원은 독립문을 건립할 부지 주변을 공원으로 꾸미기 위한 기념물적인 목적으로 계획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독립문 건립과 독립공원의 조성은 같은 맥락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독립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독립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독립문 건립계획이 보도되고 열흘쯤 뒤인 7월 2일 독립신문과 같은 날 신문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t』에 보도가 나갔다.

... 모화관을 갖쳐 독립 공원디를 만들 일을 의론 홀터인데 ... 이 공원디가 조선이 독립헌 표로 몬드느거시라 ... 엇지 독립 일에 인 연하야 적고 크고 간에 힘을 안 쓰는 자가 있스리요 ... 국민이 정헌터 가서 몹은 기운을 마시고 운동을 흐락면 거기 가서 설터이니 인민의 위생에 대단히 유조 훈 일이라(『독립신문』, 건양원년(1896), 7월 2일 논설)

신문에서 보다시피 독립공원 조성의 목적에 있어 ‘독립’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으며 애국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모금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원의 위생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곳에서 운동과 휴식이 행해지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독립공원이 서구의 근대 공원의 개념을 도입한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독립공원과 서재필의 공원관

서재필은 독립문 건립의 책임자였으며 독립공원의 배치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역할을 했다. 그가 이러한 공원과 독립문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은 그가 ‘공원’이라는 서구 문화를 누구보다 오랜 기간 접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유직, 2008). 게다가 서재필이 그의 자서전에서 “... 펜실베니아(Pennsylvania)의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 머물렀으며 이곳은 미국 독립 당시 대표자들이 모여 독립을 선언하던 곳으로 자유종(自由鐘)과 독립각(獨立閣)이 있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특히 당시의 경험이 독립공원 조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공원의 조성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벌인 것은 풀리처(Joseph Pulitzer)가 1886년 자유의 여신상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인 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이택휘 등, 1993).

이러한 몇 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전개된 독립공원 조성 계획의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원의 조성 방향, 활용 목적 등을 밝히고 있다.

... 각종 외산 딸기나무 등을 시험하는 공원을 계획할 것을 제안한다. 공원의 일부는 테니스, 축구, 크리켓 그리고 야구 등의 야외활동을 위해 지정하고 일부는 공무원의 일과 후 여가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공원의 일부를 매주 혹은 격주마다 한 번씩 적절한 주제에 대한 강연을 주최한다(『The Korean Repository』, 5(8), 1898년 8월호)³⁾.

서재필이 공원에 다양한 나무를 심어 ‘실험’을 해보고자 했음은 그가 공원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데 실용적인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 공원을 운동 활동을 위한 공간, 휴식을 위한 공간, 강연을 위한 공간으로 나누어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휴식을 위해서는 공원 이용의 주체를 ‘정부의 관료(공무원)’로 한정지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서재필이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는 일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특권’으로 여기고 있음을 추측하게 하는 부분이다. 반면 공원에서 열릴 강연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바로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공원이 민중의 계몽을 위한 장소가 되기를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재필이 강조하는 ‘계몽’의 중요성이 공원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공원이 조성될 장소 자체는 그다지 이상적인 곳

은 아니었다(『The Independent』의 Editorial, 1896년 7월 2일)⁴⁾. 그때까지 주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것⁵⁾으로 보아 서울에서 이곳이 중심거리는 아니었으며 다소 외진 지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되며(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7년 7월 15일)⁶⁾,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울은 정비되고...그 위로 다리가 놓이며, 개울 양안을 따라서 버드나무가 일렬로 늘어서, 그 아래로는 잘 만든 도로가 있으며, 그곳으로 마차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부드럽게 언덕으로 이어지고, 이곳저곳에는 낙엽수와 관목들이 식재되며, 산책로와 도로가 구불구불 들락날락한다고 상상해 보라...물론 주된 관심을 끄는 것은 1894년에 헐어버린 영은문 자리에 세워질 독립문일 것이다(『The Independent』, 1896년 7월 2일 Editorial)⁷⁾.

이 글에서는 서구의 픽처레스크(picturesque) 공원이 연상된다. 근대 공원은 그 기능과 의미의 측면에서 분명히 과거의 공원과는 다르긴 했지만 그 형태는 여전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자연 풍경을 모방하고 있었으며, 서재필도 역시 공원이라면 이러한 목가적인 풍경과 휴식의 공간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게다가 '마차와 자전거로 공원을 이용하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은 과거 센트럴파크의 조성 초기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실상 서민들이 공원을 즐기는 모습은 아니며 국민들의 성금으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던 처음의 의도와 대치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한편 주변이나 서울 시내에 생길 도로와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재필은 공원을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IV. 결론

개화기 열강의 이권 침탈과 일제의 간섭에 대응할 힘을 잃고 극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 속에서 공원 문제는 다소 관심 밖의 일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기수, 유길준, 윤치호⁸⁾를 비롯한 해외 도항자들의 공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독립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공원에 대한 의식은 꾸준히 존재해 왔다.

특히, 독립공원에 이르러서는 모금을 통한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공원이 생겨날 수 있었으며 당시의 어려운 사회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독립'의 의지가 담긴 사회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서 공원이 형성될 수 있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탑골공원은 한국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민족정기를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지기도 했다(박승진, 2003). 따라서 우리

나라의 공원 역시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생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서구로부터 수입된 문화로서의 공원은 서양의 공원을 모방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길준과 서재필의 공원관 속에도 그러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길준이 서구의 공원을 동양적 해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시도했던 사실, 그리고 독립공원이 단순한 서구 공원의 외양을 이식한 것이 아닌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의지가 담긴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근대 공원의 자생성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1. 서유견문을 번역하거나 편집하여 출간한 책은 다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유견문(유길준, 1995)을 주로 인용하였다.
- 주 2. "나라 안의 큰 도시마다 도서관, 식물원, 박물관, 공원 등을 개설 하는데, ... 정부가 크게 힘써야 할 중요한 일이다..."
- 주 3. 이유직(2008) 재인용
- 주 4. '독립관 전후좌우의 토지에 경작하는 일을 한성부에서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바이다. - 『독립신문』 광무 원년(1897) 4월8일.
- 주 5. 신용하(2001) 재인용
- 주 6. 이유직(2008) 재인용
- 주 7. 신용하(2001) 재인용
- 주 8. 본고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윤치호의 일기(1987) 중에는 세계 각국의 공원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볼 수가 있다. 윤치호와 관련해서는 근대 공원의 역사와 관련해 발전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차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인용문헌

1. 강신용, 장윤환(2004)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대구: 대왕사.
2. 김정현(2006) 俞吉濬과 梁啓超의 미국체험과 근대국가 인식: 俞吉濬의 <西遊見聞>과 梁啓超의 <新大陸遊記>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명연구 7(2): 43-77.
3.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7년 7월 15일.
4. 독립신문. 1896년.
5. 박승진(2003) 탑골공원의 문화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30(6): 1-16.
6. 서재필기념회(2003) 서재필과 그 시대. 서울: 서재필기념회.
7. 신용하(2001)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8. 유길준 저, 허경진 옮김(1995) 서유견문. 서울: 한양출판.
9. 윤치호 저, 송병기 역(2003) 윤치호 일기1-2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0. 이조영(1991) 유길준의 군주론 연구-서유견문과 정치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1. 이유직(2008) 독립공원의 조경사적 의의. 한국조경학회지 36(1): 103-115.
12. 이택희 외 5인(1993) 서재필. 서울: 대우학술총서.
13. 정용화(1999) 다시 읽는 서유견문 :서유견문. 유길준 著<書評>. 동아 시아비평 3: 40-51.
14. 주진오(2009) 서재필의 한국근대사 인식. 한국학연구21: 303-342.
15. 한철호(2000) 俞吉濬의 개화사상서 「西遊見聞」과 그 영향. 진단학보 89: 227-244.
16. The Independent. 1896년.
17. The Korean Repository 5(8). 1898년 8월호.